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The Development of a Friendship Quality Scal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이 은 해 *
Rhee, Un Hai

고 윤 주 **
Koh, Yun Joo

ABSTRACT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preliminary version of the Friendship Quality Scale(FQS) were examined with data collected from 300 3rd and 5th grade children. Scores on the Self-Perception Scale were obtained to examine convergent validity. The FQS assesses friendship quality in 9 sub-scales, inclusive of 6 friendship functions. Factor analysis confirmed the 9 subscale structure of the FQS for 5th graders, but 4 friendship functions instead of 6 were a better fit for 3rd graders. Except for one, the sub-scales showed relatively high internal consistency ; Cronbach α ranged from .70 to .93. Convergent validity was indicated by correlations between self-perception and sex differences in friendship functions. Friendship functions and satisfaction were related to self-perceptions in social acceptance, behavior, and global self-worth. Girls reported higher friendship functions and satisfaction in friendship than boys.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아동의 발달에 친구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20세기 중반을 전후해서 Sullivan과 Piaget에 의해 부각되었지만 실제 연구가 활성화 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이후이다. Sullivan

(1953)은 아동이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협력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또래 친구와의 관계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한편 Piaget(1965)는 부모를 포함한 성인과의 관계는 아동으로 하여금 사회의 권위와 질서를 내면화하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도록 가르치는 일방적인 관계이지만, 또래와의 관계는 서로의 욕구를 조절하고 협력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규칙과 질서를 창조해내는 기술까지도 제공하는 호혜평등의 관계로서 나름대로의 특별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또래 및 친구관계의 역할을 Bukowski와 Hoza(1989)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 또래 친구는 성숙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주고, 둘째 아동 자신이 주위로부터 사회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통해서 안정된 정서를 갖게 도와 주며, 셋째 자아 개념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또래 친구의 역할은 그 영향이 아동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 이후의 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Bagwell과 동료들(1998)의 장기 종단적 연구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또래 친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경험적 연구로 연결된 것은 관계 자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함께 아동이 사는 생활 환경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다. 발달을 바라보는 최근의 관점은 아동의 발달을 환경과 무관한 개인의 발달로만 보려 하지 않고 관계 맥락 안에서 조명하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로서 아동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포함한 더 큰 사회적 맥락 안에서 성장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Youniss, 1980). 이는 80년대 이전에 비해 훨씬 이른 나이부터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종일반등을 통해서 가정 이외의 환경과 또래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최근의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세대간의 격차가 증가하고(Schmidt-Denter, 1988), 그로 인해 동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또래와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래 관계는 친구관계와 자주 혼용되어 왔

데, 또래 관계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집단내에서 개인이 맺고 있는 일반적인 관계를 일컫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연령이 강조되고(Hartup, 1977), 친구관계는 주로 두 친구의 관계에 국한되어 사용되며 관계의 친밀함이나 호혜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동의 또래 관계 연구는 주로 또래 집단내에서의 아동의 지위나 또래 수용도를 주제로 진행된 반면, 친구관계는 두 친구 사이에서 경험되는 다양한 사회정서적 지원 및 갈등 등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전자의 연구들은 사회측정적(sociometric) 방법을 이용해서 비교적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이원적(dyadic) 관계인 친구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Furman, 1996).

최근 국내에서도 아동의 사회적 적응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출생을 저하로 인해 형제 관계가 감소하고 취업모의 증가로 인해서 시설에 위탁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또한 지적 발달에만 치중한 양육 환경 등으로 인해서 성숙한 사회성 발달과 적응을 위한 또래 친구의 역할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특히 또래 집단으로부터 소외된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청소년 비행이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또래 집단의 거부나 무시가 반드시 학교 생활의 부적응이라는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연구(Parker & Asher, 1993; Vandell & Hembree, 1994)에 의하면, 집단으로부터 거부되거나 무시된 아동도 한 명 이상의 친한 친구를 가지고 있을 때 부적응의 위험은 낮아진다고 한다. 또한 자아개념의 증진이나 도덕성 발달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는 또래 수용도보다 친구관계와 더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Bagwell, 1989; Bukowski & Hoza, 1989). 따라서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단 수준에서의 사회적 적응 능력을 반영하는 또래 수용도뿐만 아니라 이원적 관계

의 수준에서 아동이 맺고 있는 친구관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아동기의 친구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령기 아동의 우정관계 개념에 대한 연구(이주옥, 1984), 그리고 우정개념 발달과 분배행동과의 관계를 본 연구(김미혜, 1992)가 있다. 한편 또래수용도와 관련된 변인으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안진석, 1981), 외로움(도현심, 1996), 사회적 정보처리 능력(임연진, 1998), 귀인행동(이미순, 1995), 친구관계의 질(윤미경, 1998), 대체지지(최용주·이재연, 1993) 등이 연구되었다. 이는 또래수용도에 관한 연구에 비해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Furman (1996)의 지적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현상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서 또래수용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잘 확립되어 있는 편이지만, 친구관계의 질을 측정할 타당한 도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 초등학교 아동의 친구관계를 다양한 질적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친구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도구들이 개발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구마다 측정하고 있는 구인들이 다르고 아직까지 고전적인 이론이나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보완해가는 과정에 있다(Furman,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친구관계를 측정하는 도구들 중에서 가장 다양한 측면을 측정하고 있는 McGill 친구관계 질문지(Mendelson, 1995; Mendelson & Aboud, 인쇄중)를 기초로 하되, 관련 선행 연구들과 우리 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통해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친구관계의 질

친구관계도 다른 사회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회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다. 인간 발달 분야에서 발달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기능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각 관계의 유형에 따라 충족되는 욕구가 다르고 얻어지는 지원의 종류가 다르다는 Weiss(1969, 1974)의 가설과 경험적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통해서 Weiss(1974)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애착, 신뢰, 사회적 상호작용, 인정, 도움, 양육의 여섯 가지로 지적한 바 있다.

이 결과를 기초로 Furman과 Buhrmester (1985)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 (NRI)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Weiss가 제안한 여섯 가지 기능 중에서 애착을 애정과 친밀감으로 나누어 7개의 기능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갈등, 처벌, 상대적 지위,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더 첨가하였다. 그러나 이 도구는 또래 관계 이외에 성인과의 관계도 측정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친구관계만을 측정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 친구관계만을 측정하는 도구들은 이 도구보다 더 협소하게 구인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Berndt가 개발한 도구(Berndt & Miller, 1993)는 크게 친구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친사회적 행동, 자아개념 지원)과 부정적인 측면(갈등, 경쟁)을 측정하고 있다. 한편, Bukowski와 동료들(1994)이 개발한 도구는 좀 더 체계적인데, 교제, 도움, 안정, 친밀감, 갈등의 다섯 가지 측면을 측정할 수 있다. Bukowski의 도구를 참고해서 Parker와 Asher(1993)가 개발한 도구는 친구관계의 질을 여섯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고 있는데, 교제와 레크리에이션, 도움과 충고, 인정과 보살핌, 친밀감, 갈등과 배신, 갈등 해결이 포함된다.

이상의 도구들의 공통점은 첫째, 연구대상 아동들이 동성의 가장 친한 친구 또는 친한 친구에 대한 지각에 의해 응답하게 되어 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구관계를 측정할 때, 행

동적인 측면보다는 친구관계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것이 더 신뢰롭고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기 때문이다(Furman, 1996; Mendelson & Aboud, 인쇄중). 둘째, 긍정적 지원의 기능뿐만 아니라 갈등과 경쟁 또는 배신과 같은 부정적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구는 긍정적인 지원을 많이 제공해주는 관계이지만, 가까운 관계일수록 갈등의 위험은 내재하기 마련이고(Rook, 1984), 특히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인 또래 친구관계에 갈등과 경쟁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Park, 1996; Shantz & Hobart, 1989). 따라서 친구관계의 질은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측정해야만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Berndt, 1996). 본 연구에서 기본적 틀로 참조한 McGill 친구관계 측정 도구(Mendelson & Aboud, 인쇄중)는 친구가 제공하는 여섯 가지의 긍정적 기능(교제의 즐거움, 도움, 친밀함, 신뢰, 인정, 정서적 안정),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 그리고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포함하고 있다. 이 도구는 부분에 따라 초등학교 아동과 청소년 및 성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적합한 부분만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구인들은 여섯 가지 긍정적 기능, 부정적 측면에서 갈등과 경쟁, 그리고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었다.

3. 친구관계의 질과 관련된 변인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척도의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친구관계의 질과 관련된 변인을 조사해보면 성, 연령, 자아개념 등이 있다(Berndt & Miller, 1993; Bukowski & Hoza, 1989; Mendelson & Aboud, 인쇄 중). 먼저 친구관계에서의 성차를 살펴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더 친밀하고 깊은 친구관계를 유지하며, 남자는 여아보다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더 경쟁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한다고 한다(Schmidt-Denter, 1988). 초등학교 3-5학년 아동의 친구관계 질에 대한 Parker와 Asher(1993)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도움과 충고, 인정과 보살핌, 친밀감, 갈등 해결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친구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Parker와 Asher(1993)의 연구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3, 4학년 아동의 친구관계를 조사한 윤미경(1998)의 연구에서는 친밀감에서만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갈등 등의 부정적 측면에서는 성차가 뚜렷하지 않지만, 다양한 사회정서적 지원을 포함하는 긍정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일관된 성차가 나타나고 있다.

친구관계에서의 발달적 변화에 관한 연구로서 Sullivan(1953)은 중기 아동기부터 동성과의 단짝 친구관계가 발달하기 시작하여 청소년기로 갈수록 관계의 친밀감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들을 개관한 Berndt(1989)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러한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아동의 인지 발달과 관련이 있다. 친구에 대한 개념 또는 기대의 발달에 관한 Bigelow와 La Gaipa(1975)의 연구를 참조하면, 초등학교 초기에는 함께 놀거나 도움을 주는 동료라는 개념이 강하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서로에 대한 인정과 수용 및 신뢰감이 더해지는 관계로 인식되어진다. 초등학교 시기에 친구관계의 질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제한되어 있으며, 친구관계의 발달에는 인지적 또는 생물학적 성숙외에 사회 환경 변인들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Berndt, 1982)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이 친구관계 형성을 도울 것이라는 또는 만족스러운 친구관계가 자긍심을 높여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자아개념은 친구관계와 관련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Berndt, 1996; Bukowski & Hoza, 1989). 자아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Harter의 자아지

각 척도들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와 관련이 있음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중학생들의 친구관계 질과 Harter의 아동용 자아지각 척도(1985)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Berndt와 동료들의 연구(Berndt & Keefe, 1993; Berndt & Miller, 1993)에 의하면, 친구관계의 긍정적 측면은 자아 지각의 하위 척도중에서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 '사회적 행동', '전반적 자아가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친구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은 '학업능력', '사회적 행동'과 부적인 상관이 유의했다. Bagwell과 동료들(1998)의 장기 종단적 연구에 의하면, 5학년 때의 친구관계 유무가 13년 후 측정할 Harter(1990)의 대학생 용 자아지각 척도 중 전반적 자아 가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상의 문헌 고찰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용 친구관계의 질 척도에 여섯 가지 친구의 기능(인정, 도움, 정서적 안정, 교제의 즐거움,

신뢰, 친밀감)을 측정하는 긍정적 측면의 하위 척도들과 갈등과 경쟁을 측정하는 부정적 측면의 하위 척도들 그리고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감 척도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상의 아홉 개 하위 척도가 여아와 남아의 친구관계 차이를 변별하는지 그리고 Harter의 아동용 자아지각 척도 중 어떠한 하위영역들과 관련성을 갖는지 알아봄으로써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응답할 수 있는 3학년 이상의 아동에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목표로 3학년과 5학년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에 친구관계의 질이 어느 정도나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친구관계 발달에 대한 고전적인 이론(Buhrmester & Furman, 1986; Piaget, 1965; Sullivan, 1953; Youniss, 1980)으로는 최근의 개념을 비교할 수 없지만 친구관계의 질적 차이가 학년에 따라 있는지도 부수적으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내 영등포구에 위치한 1개 초등학교의 3학년과 5학년에서 각각 4학급씩을 무선 선정하고 이들 학급에 속한 남녀 아동을 모두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시기에 결석한 아동과 자료의 누락 및 불충분한 응답자를 제외한 후 3학년 150명(남아 75, 여아 75), 5학년 150명(남아 75, 여아 75)이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3학년의 평균 연령은 9세 2개월, 5학년의 평균 연령은 11세 3개월이었다. 연구대상 아동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지표의 하나로 아버지의 직업에 관한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이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이

표에서 대상의 아버지 직업을 살펴보면, 사무직이 40% 정도로 가장 많으며 단순노무직에서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의 분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산층이 대부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도구

1) 친구관계의 질 척도

친구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들(Furman & Buhrmester, 1985; Mendelson, 1995; Mendelson & Aboud, 인쇄중)과 2차의 예비조사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으며, 모두 아홉 개의 하위 척도 별로 6문항씩 5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 척도는 친구의 긍정적 기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아버지 직업 분포

직 종	3학년	5학년
	빈도(%)	빈도(%)
단순노무 및 생산직	7(4.7)	10(6.7)
서비스직	22(14.7)	13(8.7)
판매직	24(16.0)	24(16.0)
사무직	61(40.7)	65(43.3)
행정 및 관리직	18(12.0)	19(12.7)
전문직	17(11.3)	18(12.0)
무직	1(.7)	1(.7)
무응답	0	0
계	150(100)	150(100)

능 6 가지, 부정적 측면 두 가지, 그리고 친구에 대한 만족감으로 구성된다. 친구의 여섯 가지 긍정적 기능과 정의를 살펴보면, 첫째 '교제의 즐거움'으로 친구와 어떤 활동을 함께하는 것과 그때 경험하는 재미와 즐거움에 대한 기대를 포함한다. 둘째는 '도움'으로서 필요한 정보와 충고를 해주거나 목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실제로 도와주는 기능이다. 셋째는 '친밀감'으로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용적인 분위기를 제공해주고, 친구의 욕구나 기분상태를 민감하게 아는 기능이다. 넷째는 관계에 대한 '신뢰'로 친구와의 지속적인 관계 그리고 친구의 충직함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다섯째는 '인정'으로 격려 등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아개념을 증진시켜주거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기능이다. 여섯째는 '정서적 안정'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편안함과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기능이다. 친구관계의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갈등'은 의견의 불일치, 다툼, 또는 친구의 괴롭힘과 같은 불편한 상황에 대한 지각을, '경쟁'은 학교와 놀이 상황을 포함한 일상 생활에서 친구와 경쟁심을 포함한다.

한편 '관계에 대한 만족감'은 친구에 대한 애정과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스러운 느낌을 의미한다.

아동들은 제시된 학급별 동성 아동의 명단에서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을 선정하고 이 친구에 대해서 친구관계의 질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4점 척도로서 "아주 많이 그렇다"(4점), "많이 그렇다"(3점), "조금 그렇다"(2점), "아주 조금 그렇다"(1점)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크기가 다른 네 개의 원 중에서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2) 자아지각척도

자아지각 척도는 초등학교 3~6학년용(이은혜·신숙재·송영주, 1992)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Harter 척도(1985)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아동에게 적용하도록 개발된 것으로서, 3학년용은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외모, 사회적 수용, 사회적 행동의 5개 영역별 6문항씩 총 30문항으로 되어있고, 5학년용은 이상의 5개 영역에 전반적 자아가치 영역이 포함되어 6개 영역 별로 6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반응 형식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지각 중의 하나를 먼저 선택한 후, 그 문항의 내용이 자신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다시 결정하는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4점,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1점으로 채점된다.

3. 연구의 절차

1) 예비조사

첫번째 예비조사는 우리 나라 아동에게 적합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의 예비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5세 유아 5명과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아동 15명에게 개방형 질문을 통한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개방형 질문은 아동의 친구관계 질에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내용을 묻는 질문으로 작성되었다. 예를 들어,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먼저 질문하고, “그 친구가 너에게 도와줄 때가 있었는지?”,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재미있는지?”, “그 친구가 너에게 잘했다고 말해줄 때가 있었는지?”, “그 친구와 사이에서 기분이 나쁜 적이 있었는지?” 등으로 질문하고, 언제 어떻게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추가 질문을 하여 구체적인 기술을 수집하였다. 개별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친구관계의 기능, 만족감, 갈등 등 영역으로 내용분석을 하여, 빈도가 많은 응답내용을 기초로 54문항의 예비척도가 구성되었다.

제 2차 예비조사는 54문항의 예비척도를 3학년 9명, 5학년 9명에게 실시하여 문항내용이나 응답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척도 실시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소요시간은 5분 ~ 15분 정도 걸렸고, 대체로 문항내용에서 어렵거나 응답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1998년 11월 초에 대상학교의 협조를 구하고 선정된 학급별 아동의 명단을 받은후 사전훈련된 검사자 4명이 방문하여 각 학급에서 집단으로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의 순서는 자아지각 척도를 먼저 실시하고, 다음에 친구관계의 질 척도를 실시하였다. 친구관계에 대한 응답은 비밀로 할 것임을 주지시켰다. 대상 아동의 아버지의 직업에 관한 정보는 담임교사의 협조로 학교 기록을 통해 수집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window용 SPSS(version 8.0)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는데, Varimax회전을 이용한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Cronbach α 및 적률상관계수 산출, 이원 변량분석 등이 실시되었다. 친구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54문항에 대해서 1차 요인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해당 요인의 부하량이 높고(최소 .30) 여러 요인에 걸쳐서 부하량을 나타내지 않는 문항으로 아홉 개의 척도마다 4 문항씩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36문항(부록 참조)을 기초로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련된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척도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최종 선정된 문항들을 기초로 내적 일치를 검증하는 Cronbach α 계수를 각 하위 척도

<표 2> 친구관계의 질 하위척도의 점수범위, 평균(SD) 및 신뢰도

	가능한 점수 범위	3학년 (N=150)		5학년 (N=150)	
		평균(SD)	신뢰도(α)	평균(SD)	신뢰도(α)
기능/정서적 안정	1-4	2.99(.89)	.86	3.05(.92)	.93
신뢰	1-4	3.60(.61)	.83	3.39(.75)	.91
도움	1-4	3.06(.74)	.74	3.05(.74)	.81
친밀감	1-4	2.79(.90)	.77	2.95(.89)	.86
인정	1-4	2.80(.85)	.76	2.73(.81)	.83
교제의 즐거움	1-4	3.69(.47)	.70	3.56(.58)	.83
전체	1-4	3.15(.57)	.92	3.12(.66)	.95
갈등	1-4	1.54(.56)	.63	1.16(.44)	.68
경쟁	1-4	1.83(.90)	.86	1.98(.89)	.91
만족감	1-4	3.60(.58)	.74	3.56(.60)	.84

별로 산출하였다. 친구의 기능 하위 척도 6개와 친구의 기능 문항 전체, 갈등, 경쟁, 만족감에 대한 α 계수와 함께 각 하위 척도의 점수 범위, 평균과 표준 편차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갈등' 척도의 α 계수가 3학년에서는 .63으로 5학년에서는 .68로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그 외의 척도들에서는 3학년의 경우 .70 이상을, 5학년의 경우는 .80 이상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신뢰도라고 할 수 있다. 연구(e.g. Bagwell, 1998)에 따라서는 친구의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친구의 사회정서적 지원이라는 하나의 척도로 묶어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친구의 기능에 관한 24 문항 전체의 신뢰도를 검증해 보았는데 3학년은 .92로 5학년은 .95로 높게 나타났다.

2. 타당도 검증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세 가지 자료가 분석되었다. 첫째,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고, 둘째, 변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성차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척

도의 하위 영역들과 자아지각 척도의 하위 영역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1)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문항들의 구인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아홉 개의 하위 척도별로 여섯 문항씩 전체 54 문항의 주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당요인에 부하량이 .30이상이고 여러 요인에 걸쳐 부하량을 보이지 않는 문항들로 척도별 각각 4문항씩을 선정하였다. 선택된 36문항만으로 다시 주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5학년은 7개의 요인으로 3학년은 9개의 요인으로 묶이었다. 5학년의 경우, 7개 요인 중에서 두 요인이 친구관계의 부정적 측면인 갈등과 경쟁이었고, 친구의 기능과 만족감은 나머지 다섯 개의 요인으로 묶이었다. 3학년의 경우, 9개 요인 중에서 세 개는 갈등과 경쟁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여섯 요인은 친구의 기능과 만족감에 관한 것이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 관련된 문항들과 부정적인 측면에 관련된 문항들이 서로 다른 요인으로 분류됨을 확인하고, 다시 친구의 기능에 관련된 24문항, 갈등과 경쟁 8문항, 만족감 4 문항을 각각 분리해서 주요인 분석을 하였다.

<표 3> 친구관계의 질 하위 척도들 간의 부분 상관 계수

	1	2	3	4	5	6	7	8
1. 정서적 안정	-							
2. 신뢰	.53 ***	-						
3. 도움	.74 ***	.52 ***	-					
4. 친밀감	.62 ***	.45 ***	.64 ***	-				
5. 인정	.71 ***	.52 ***	.71 ***	.56 ***	-			
6. 교제의 즐거움	.52 ***	.65 ***	.59 ***	.46 ***	.52 ***	-		
7. 갈등	-.24 ***	-.22 ***	-.29 ***	-.13 *	-.23 ***	-.11	-	
8. 경쟁	-.12 *	-.14 *	-.19 ***	-.12 *	-.09	-.06	.39 ***	-
9. 만족감	.58 ***	.74 ***	.60 ***	.50 ***	.55 ***	.71 ***	-.29 ***	-.12 *

* p<.05 *** p<.001

친구의 기능과 만족감 문항들은 요인 분석에서 분명하게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내용면에서 친구의 기능은 친구가 대상 아동에게 무엇을 해주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반면에, 만족감은 대상 아동이 친구에게 느끼는 감정에 대해 질문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 분리하였다.

<표 4>에는 2차 요인분석에서 직교 회전 후 .40 이상인 요인 부하량과 고유치 및 누가 변량이 제시되어 있다. 3학년의 요인 분석 결과를 보면, 친구의 기능 문항들이 4개의 요인으로 묶이었는데, '친밀감', '신뢰', '교제의 즐거움'은 각각 다른 요인으로 묶이었는데, '정서적 안정', '도움', '인정'은 한 요인으로 묶이었다. 5학년의 결과에서는 친구의 기능이 여섯 개의 요인으로 묶이었는데, '도움'에서 한 문항(16번)과 '인정'에서 한 문항(12번)이 '정서적 안정'에 포함되었다. 즉, 5학년에 비해 3학년의 친구관계에서는 사회적 지원의 종류가 아직까지 덜 분화되어 나타났다. 한편, 부정적 측면인 '갈등'과 '경쟁' 그리고 관계에 대한 '만족감' 문항들은 각각 다른 요인으로 분명

하게 나뉘어졌다. 여기서 하위척도들을 몇 개 요인으로 묶어 이후의 분석을 할 수도 있으나, 개념적으로 구분된 하위척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분석하는 것이 보다 상세한 자료를 제시하므로 기존의 9 개 척도에 기초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또 다른 근거는 9개 척도의 신뢰도가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던 점이다.

아홉 개 하위척도를 기초로 하위 영역간의 상호관계 정도를 검토하기 위해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학년차로 인해 상관의 정도가 과대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학년차를 통제한 이후의 부분 상관 계수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친구관계의 긍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여섯 가지 친구의 기능 척도들간의 상관 계수는 .45부터 .74까지 상당히 높았고 모두 유의했다. 친구관계의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갈등과 경쟁의 상관계수도 .39로 유의했다. 만족감 척도는 나머지 모든 하위 척도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친구관계의 긍정적 측면과 관련된 하위 척도들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부정적

<표 4> 친구관계의 질 문항에 대한 2차 요인 분석 결과

하위 척도	문항*	3학년				5학년					
		I	II	III	IV	I	II	III	IV	V	VI
정서적 안정	13	.69				.72					
	27	.67				.68					
	34	.72				.77					
	41	.76				.76					
신뢰	18			.82			.89				
	25			.77			.83				
	32			.81			.81				
	39			.54	.48		.62				
도움	2	.40	.46		.43						.81
	9	.55								.40	.53
	16	.59				.61					(.32)
	30	.59									.57
친밀감	3		.81					.74			
	17	.43	.53					.75			
	31		.70					.69			
	38	.45	.50					.68			
인정	5	.52								.75	
	12	.61								(.32)	
	26	.74				.42				.65	
	40	.67								.70	
교제의 즐거움	1		.42		.49				.51		
	8				.71				.67		
	15				.74				.81		
	29				.73		.42		.68		
고유치 누가 변량		5.53	2.96	2.77	2.72	3.77	3.32	3.00	2.80	2.47	2.04
		23%	35%	47%	58%	16%	30%	42%	54%	64%	73%
갈등	43		.86				.80				
	45		.84				.53				
	49		.84				.84				
	53		.41				.68				
경쟁	46	.71	.41			.84					
	48	.79				.87					
	50	.85				.90					
	52	.81				.90					
고유치 누가 변량		2.6	2.2			3.17	2.10				
		34%	60%			40%	66%				
만족	14	.77				.83					
	21	.73				.80					
	28	.77				.83					
	35	.80				.85					
고유치 누가 변량		2.36				2.73					
		59%				68%					

* 문항내용은 부록 참조

<표 5> 각 하위 척도에서 학년과 성에 따른 평균점수(SD)와 이원변량분석 결과(F)

친구관계의 질	남	여	F	3학년	5학년	F
기능/정서적 안정	2.73(.97)	3.31(.73)	34.58 ***	2.99(.89)	3.05(.92)	.45
신뢰	3.35(.81)	3.62(.52)	12.16 ***	3.59(.61)	3.39(.75)	7.13 **
도움	2.89(.77)	3.21(.68)	15.09 ***	3.06(.74)	3.05(.74)	.02
친밀	2.60(.93)	3.13(.78)	28.92 ***	2.79(.90)	2.95(.89)	2.68
인정	2.58(.84)	2.96(.78)	16.56 ***	2.80(.85)	2.73(.81)	.53
교제의 즐거움	3.55(.62)	3.70(.42)	6.91 **	3.69(.47)	3.56(.58)	4.08 *
전체	2.95(.67)	3.33(.49)	30.32 ***	3.15(.57)	3.12(.66)	.20
갈등	1.63(.54)	1.52(.45)	3.73	1.54(.56)	1.61(.44)	1.15
경쟁	1.95(.92)	1.87(.87)	.57	1.83(.90)	1.98(.89)	2.27
만족감	3.46(.69)	3.70(.44)	13.25 ***	3.60(.58)	3.56(.60)	.28

* p<.05 ** p<.01 *** p<.001

측면과 관련된 하위 척도들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친구로부터 받는 긍정적 지원이 많을수록 그리고 갈등과 경쟁은 적을수록 만족감은 높다고 할 수 있다.

2) 성차

하위 척도 점수들의 성차가 3학년과 5학년 모두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년과 성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년과 성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F 수치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학년차는 '신뢰'와 '교제의 즐거움'에서만 유의한 반면, 성차는 친구관계의 기능 6개 하위척도 및 전체와 만족감에서 모두 유의했다. 갈등과 경쟁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신뢰'와 '교제의 즐거움'에서의 학년차는 3학년 아동들이 5학년보다 친구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친구와 함께 노는 것을 더 좋아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차이는 학년차보다 더욱 뚜렷하게 나타

났으며, 친구관계 기능의 모든 하위영역과 만족감에서 여아의 평균이 남아의 평균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여아들이 친구관계에서 더 많은 사회정서적 지원을 받고 만족감을 보고하였다.

3) 친구관계의 질과 자아지각

친구관계의 아홉 개 하위 척도들과 자아 지각의 하위 척도들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가 <표 6>과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3학년의 결과가 제시된 <표 6>을 참고하면, 친구관계의 기능은 자아 지각중에서 사회적 수용 및 사회적 행동과 전반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자아지각의 나머지 영역과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수용과 자신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지각은 친구의 기능 중 친밀감을 제외한 다섯 가지 기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신체적 능력에 대한 지각은 정서적 안정 및 도움과, 외모에 대한 지각은 인정 및 교제의 즐

<표 6> 3학년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자아 지각간의 상호상관계수

하위척도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외모	사회적 수용	사회적 행동
기능/정서적 안정	.06	.20 *	.07	.34 ***	.24 **
신뢰	.03	-.01	.16	.20 *	.16
도움	.11	.20 *	.14	.36 ***	.24 **
친밀감	-.08	-.02	.00	.13	.15
인정	.11	.16	.20 *	.35 ***	.30 ***
교제의 즐거움	.11	.11	.19 *	.31 ***	.22 **
전체	.07	.14	.15	.36 ***	.29 ***
갈등	-.01	.03	-.09	-.07	-.25 **
경쟁	.04	.03	-.04	.06	-.24 **
만족감	.19 *	.04	.20 *	.29 ***	.21 *

* p<.05 ** p<.01 *** p<.001

<표 7> 5학년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자아 지각간의 상호상관계수

하위척도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외모	사회적 수용	사회적 행동	전반적 자아가치
기능/정서적 안정	.04	.11	.07	.28 ***	.28 ***	.19 *
신뢰	.03	.09	.10	.24 **	.24 **	.18 *
도움	.12	.09	.12	.24 **	.30 ***	.21 **
친밀감	.12	.14	.11	.16	.26 ***	.13
인정	.18 *	.24 **	.18 *	.27 ***	.28 ***	.16 *
교제의 즐거움	.13	.04	.11	.28 ***	.28 ***	.21 **
전체	.12	.15	.13	.29 ***	.32 ***	.21 **
갈등	.02	-.11	-.13	-.22 **	-.04	-.12
경쟁	.02	-.08	-.19 *	.01	.15	-.15
만족감	.10	.06	.12	.27 ***	.26 **	.18 *

* p<.05 ** p<.01 *** p<.001

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자신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지각은 친구의 기능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한편, 갈등과 경쟁은 자신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지각과 부적 상관이 유의했다. 관계에 대한 만족감은 인지적 능력, 외모, 사회적 수용, 사회적 행동에 대한 지각 모두와 정적 상관이 유의했다. 즉, 친구로부터 사회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자신이 사회적으로 수용받고 있다

고 지각하고 있었고, 자신의 사회적 행동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한편, 친구와 갈등 및 경쟁이 심한 아동일수록 자신의 사회적 행동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친구관계에 대한 높은 만족감은 자신의 인지적, 사회적 능력 및 외모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관련이 있었다.

5학년 아동의 결과가 제시된 <표 7>을 보면, 친구관계의 질과 자아지각간의 관계가 3학년 아

동의 경우와 유사하면서 좀더 체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친구의 기능은 사회적 수용, 사회적 행동 및 전반적 자아가치에 대한 지각과 대체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갈등은 사회적 수용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감은 사회적 수용, 사회적 행동 및 전반적 자아가치와 정적 상관이 유의했다. 한편, 3

학년과 비교하여 5학년의 경우 친구의 인정은 자아지각의 모든 영역과 긍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3학년에서와 같은 결과로써 약간 기대와 다른 결과는 친구의 기능 중 친밀감이 자아지각의 사회적 행동 외에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 용 친구관계의 질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를 기초로 친구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측정하는 아홉 개의 하위 척도를 구성하고 그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 α 점수를 산출하였다. 하위 척도 중에서 '갈등'의 α 점수가 3학년에서는 .63 그리고 5학년에서 .68로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그 이외의 척도들이 보여준 내적 일치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하위척도별 문항수가 4개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갈등' 척도의 내적 일치도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다른 척도에 비해서 갈등은 다툼, 의견의 불일치, 귀찮게 함 등 다양한 내용의 문항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 '갈등'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타당도는 요인분석, 성에 따른 친구관계의 질적 차이 그리고 친구관계의 질과 자아 지각의 관련성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검증되었다. 먼저 요인분석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5학년의 경우, 여섯 가지 친구의 기능이 두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 영역의 요인으로 묶이었고, 친

구와의 갈등과 경쟁도 서로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친구에 대한 만족감 문항들도 한 요인으로 묶이었다. 한편, 3학년의 경우에는 갈등과 경쟁 및 만족감 척도는 5학년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친구관계의 기능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섯 가지 친구의 기능 중에서 '신뢰', '친밀감', '교제의 즐거움'은 해당 요인으로 각각 분류되었으나 나머지 기능들인 '정서적 안정', '도움', '인정'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5학년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도움'과 '인정'의 각각 한 문항이 '정서적 안정' 요인에 포함된 결과와 일관되는 점이 있어서 흥미롭다. Coan(1960)은 요인분석 구조의 변화를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새로운 요인이 출현하는 것이고, 둘째는 요인들이 분화되는 것이고, 셋째로 기초가 된 구인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들간의 구조적인 모습은 달라지는 것을 들었다(Furman, 1996, 재인용). 이상의 세 가지를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얻어진 두 학년의 요인분석 결과는 존재하고 있는 여섯 가지 구인들이 덜 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추후 연구에서 더 큰 표집을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으며,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친구관계의 질, 특히 사회정서적 지원이나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선행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는데(Jones, 1991; Mendelson & Aboud, 인쇄중; Park, 1996; Parker & Asher, 1993; 윤미경, 1998), 본 연구에서도 성차가 확인되었다. 여섯 가지 친구의 기능과 만족감에서 모두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는데, 친구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인 갈등과 경쟁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갈등은 친구관계의 질이 낮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회정서적 지원이 높은 관계에서도 갈등의 가능성은 있다(Rook, 1984). 그러므로 여아가 친구로부터 사회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갈등이 남아보다 적어지거나 또는 높아질 특별한 이유는 없다. 친구간의 경쟁은 서구에서 주로 남자 친구들간의 특징으로 알려져 왔다(Schmidt-Denter, 1988). 본 연구에서는 경쟁에서도 유의한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친구관계를 독일과 한국에서 비교한 연구(Park, 1996)를 참고하면, 독일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경쟁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경쟁적인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친구간의 경쟁에 대한 성차는 문화적 차이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더 연구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홉 개의 척도가 측정하는 친구관계의 질은 Harter의 자아지각 척도와 많은 부분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친구관계의 질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Berndt, 1996; Bukowski & Hoza, 1989; Mendelson & Aboud, 인쇄중). 또한 친구관계의 질이 자아지각의 하위 척도 중에서 사회적 영역인 '사회적 수용'과 '사회적 행동' 및 '전반적인 자아 가치'와는 대체로 높은 관련성을 보인 반면, 인지나 신체적 능력에 대한 자아

지각과는 별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도구의 수렴 타당도뿐만 아니라 변별 타당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 중 특이한 점은 친구의 기능 중에서 '친밀감'과 자아 지각간의 상관성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친밀감 척도의 높은 신뢰도(3학년=.77, 5학년=.86)와 분명한 성차를 고려할 때, 척도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발달적인 특성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Bigelow와 La Gaipa(1975)의 연구에서 친밀감에 대한 기대는 7학년 이후에나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나라 초등학교 3-5학년 아동의 친구관계에서는 덜 중요하거나 발달이 늦은 영역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 친구보다는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밀감'과 친구에 대한 '만족감'의 상관성이 .71에 이르는 점을 볼 때, 친밀감이 자긍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해도 이 시기의 친구관계를 구성하는 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결론을 내리면,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고학년 아동의 친구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는 만족할만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도 사용시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연구의 자료가 한 학교의 제한된 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더 큰 표집에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둘째, 신뢰도의 내적합치도는 바람직하나,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검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재검사신뢰도는 후속연구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셋째, 친구에 대한 기능의 구인타당도가 3학년의 경우 요인 분석에서 입증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3, 4학년 아동에게 이 도구를 적용할 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

라서는 여섯 가지 친구의 기능 전체를 친구의 사회정서적 지원이라는 하나의 척도로 묶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친구의 사회정서적 지원을 약간의 무리가 있음에도 여섯 가지 기능으로 세분화한 것은 친구관계의 질과 다른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보다 상세히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본 척도의 타당도와 유용성은 앞으로 친구관계의 질과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다양한 변

인들과의 관련성을 밝혀내면서 더 분명해지리라 예상된다. 또래 집단에서의 수용 정도를 측정하는 또래 지위, 학교 및 다른 사회 집단에서의 부적응 문제, 그리고 친구관계의 구조적인 면을 측정하는 친구관계망의 특성과 친구관계의 질 간의 관련성 등이 추후에 연구될 필요가 있는 주제들이다. 또한 연령 범위를 넓혀서 3학년보다 어린 아동들과 5학년 이상의 아동들에게 적용하는 과정도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미혜(1992). 아동의 공평성, 우정 개념 발달 및 분배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도현심(1996). 아동의 수줍음, 대인 적응성 및 또래 수용성과 외로움의 관계. 아동학회지, 17, 33-45.
- 안진석(1981). 취학전 아동의 인기도와 사회적 행동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미경(1998). 아동의 또래수용과 우정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순(1995).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정서적 행동과 귀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은해, 신숙재, 송영주(1992). 국민학교 3-6학년 아동을 위한 자아지각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논집(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6, 175-191.
- 이주옥(1984). 학령기 아동의 우정관계 개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연진(1998).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정보 처리 능력과 사회적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용주·이재연(1993). 학령기 아동의 친구관계에 따른 대체지지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4(1), 109-127.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1998). Preadolescents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 140-153.
- Berndt, T. J.(1982). The features and effects of friendship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1447-1460.
- Berndt, T. J.(1989). Obtaining support from friend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D. Belle (Ed.),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 (pp. 308-331). New york: Wiley.
- Berndt, T. J.(1996). Exploring the effects of friendship quality on social development.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346-36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ndt, T. J., & Keefe, K. (in press).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 Berndt, T. J., & Miller, K. A.(1993). *The assessment and correlates of adolescents'*

- friendships. Unpublished manuscript, Purdue University.
- Bukowski, W. M., & Hoza, B.(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pp.15-45). In T. J. Berndt, & G. W. Ladd,(1989).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pp.71-94). New York: Wiley.
- Bukowski, W. M., Hoza, B., & Boivin, M.(1994)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during pre-and early adolescence: Th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friendship qualities scal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471-484.
- Bigelow, B. J., & La Geipa, J. J.(1975). Children's written descriptions of friendship: A multidimensio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1*, 857-858.
- Buhrmester, D. & Furman, W.(1986). The changing functions of friends in childhood: A Neo-Sullivanian perspective. In V. J. Derlega and B. A. Winstead (Eds.). *Friendship and Social Interaction* (pp. 41-62). New York: Springer.
- Coan, R. W.(1960). Child personality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In R. B. Cattell (Ed), *Handbook of multivariate experimental psychology*. Chicago: Rand McNally.
- Furman, W.(1996). The measurement of friendship perceptions: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41-6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urman, W., & Buhrmester, D.(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 Harter, S.(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 Harter, S.(1990).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Denver.
- Hartup, W. W.(1977). Peer relations: Developmental implications and interaction in same-and mixed-aged situations. *Young Children, 32*, 4-13.
- Mendelson, M. J. (1995). *The McGill Questionnaire Negative Feelings*. Unpublished measure, McGill University, Montreal, Quebec.
- Mendelson, M. J., & Aboud, F. E. (인쇄중).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in lat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 Park, Y. J. K. (1996). *Das soziale Netzwerk in der fruehen Adoleszenz: Eine kulturvergleichende Untersuchung zweier Generationen aus Korea und Deutschlan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aet zu Köln, Köln.
- Parker, J. G., & Asher, S. R.(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Piaget, J.(1965).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
- Rook, K. S.(1984). The negative side of social interaction: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1097-1180.
- Shantz, C. U. & Hobart, C. J.(1989). Social conflict and development: Peers and siblings. In T. J. Berndt, & G. W. Ladd,(1989).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pp.71-94). New York: Wiley.
- Schmidt-Denter, U.(1988). *Soziale Entwicklung*. München-Weinheim: PVU.

Sullivan, H. 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Vandell, D. L., & Hembree, S. E.(1994). Peer social status and friendship: Independent contributors to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Merill-Palmer Quarterly*, 40, 461-477.

Weiss, R. S.(1969). The fund of sociability.

Transaction, 6, 36-43.

Weiss, R. S.(1974).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s. In Z. Rubin (Ed.), *Doing unto others* (pp.17-26). Englewood Cliff, NJ: Prentice Hall.

Youniss, J.(1980).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A Sullivan-Piaget perspective*.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부록) 친구관계의 질 척도(FQS) 문항 번호 및 내용

척도	문항 내용
기능/정서적 안정	13. 너에게 걱정거리가 있을 때 00는 너를 안심시켜 주니? 27. 네가 속상해 할 때 00는 너를 위로해 주니? 34. 네가 화났을 때 00는 화를 풀어주려 애쓰니? 41. 네가 슬플 때 00는 너를 위로해 주니?
신뢰	18. 서로 자주 못 만나도 00는 너의 친구로 남을거라고 생각하니? 25. 멀리 떨어져도 00가 너의 친구로 남아 있을까? 32. 멀리 이사가도 00는 계속 네 친구로 남아 있을까? 39. 00는 너와 오래도록 친구로 남아 있고 싶어할까?
도움	2. 네가 필요로 할 때 00는 네 부탁을 들어 주니? 9. 00는 네가 잘 모르는 것을 이해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니? 16. 네가 힘든 일을 할 때 00는 너를 도와 주니? 30. 00는 너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해 주니?
친밀감	3. 너는 c계 비밀을 이야기하니? 17. 너는 다른 친구에게 못하는 이야기를 00에게 하니? 31. 너는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00에게 말하니? 38. 너는 00에게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니?
인정	5. 00는 너에게 똑똑하다고 말해 주니? 12. 00는 네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칭찬해 주니? 26. 00는 네가 무엇이든 잘한다고 인정해 주니? 40. 00는 네가 자랑스럽다고 말해 주니?
교제의 즐거움	1. 너는 00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니? 8. 너는 00와 같이 노는 것이 재미있니? 15. 너는 00와 서로의 집에 가서 놀면 재미있니? 29. 너는 00를 만나면 신나니?
갈등	43. 너는 00와 말다툼을 하니? 45. 너는 00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니? 49. 너는 00와 싸울 때가 있니? 53. 00는 너를 귀찮게 하니?
경쟁	46. 너는 00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애쓰니? 48. 너는 어른들로부터 00보다 더 많이 칭찬 받고 싶니? 50. 너는 00보다 무엇이든지 더 잘하려고 애쓰니? 52. 너는 00보다 공부 잘한다는 말을 들으려고 애쓰니?
만족감	14. 너는 00와 친구라서 행복하니? 21. 너는 00가 가깝게 느껴지니? 28. 너는 00에게 만족하니? 35. 너는 00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니?